광주시교육청, 2년 연속 '민원서비스 최우수'

행안부 평가…국무총리 표창
중대범죄피해 학생 통합 지원
전국 첫 '광주 늘봄지니' 호평

2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시상식에서 최승복(왼쪽서 세 번째) 광주시교육감 권한대행이 국무총리 표창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광주시교육청이 행정안전부의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1위를 차지하며 2년 연속 최우수의 영예를 안았다.

2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정부 세종청사 민원동 대강당에서 열린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시상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매년 전국 시·도교육청,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 등 308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평가는 ▲민원행정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민원만족도 등 5개 항목의 실적을 토대로 이뤄지며, 점수에 따라 가~마 등급이 부여된다.

시교육청은 모든 부문에서 고른 점수를 받아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가' 등급을 달성했다.

특히 중대범죄 피해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치안·행정·NGO가 함께하는 통합 지원 시스템 운영과 AI 챗봇 '광주 늘봄지니'가 호평 받았다.

2024년 시교육청과 광주시, 광주경찰,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등 광주 지역 69개 기관·단체가 협력해 추진한 민관 네트워크 '희망티움 통합지원단'은 범죄 피해 학생의 트라우마 치료, 건강한 일상 복귀를 돕는데 톡톡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경찰이 범죄 관련 사회적 약자를 발굴하면, 시교육청은 정신건강 치료비·긴급물품을 제공하는 등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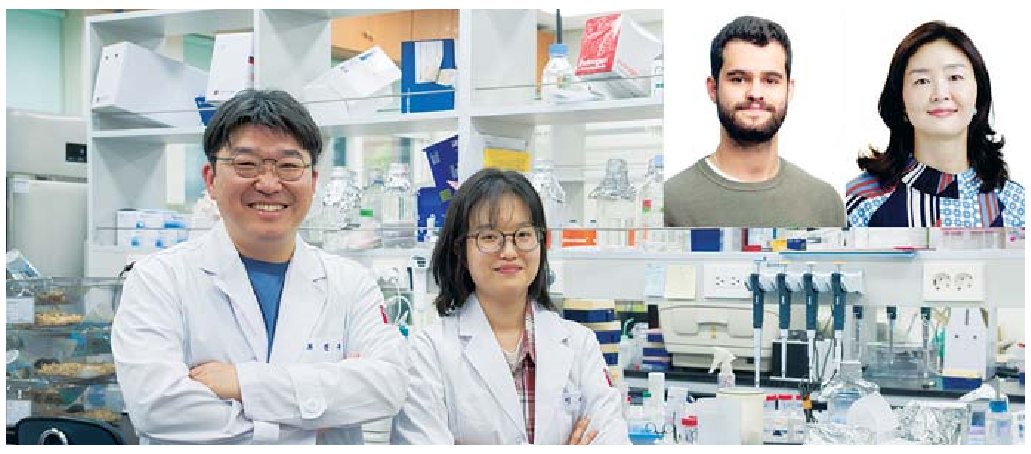
전국 늘봄학교 최초로 선보인 AI 챗봇 광주 늘봄지니는 학생, 학부모가 늘봄학교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 시간·장소 제약 없이 24시간 늘봄학교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고, 업무 편의성을 높였다는 데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또 챗GPT를 기반으로 해 예산 부담도 크게 낮춘 점도 인정 받았다.

시교육청은 이러한 서비스를 토대로 수요자 중심 혁신적 민원 시책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최승복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수상은 민원 현장에서 시민과 교육가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며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강화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박선옥 기자

"폐암 발병 극초기 차단 치료 새로운 표적 제시"

GIST 최진욱 교수팀·美 MSK 공동 연구
암 발병 '연쇄 반응 구조' 세계 최초 규명


(왼쪽부터)GIST 최진욱 생명과학과 교수, 이혜영 박사과정생, MSK 에릭 카르도소 박사과정생, 이주현 교수. 〈GIST 제공〉

국내 연구진이 폐암이 눈에 보이는 종양으로 성장하기 전 돌연변이 세포가 주변 세포들과 신호를 주고받으며 '암이 자라기 좋은 토양'을 미리 만드는 연쇄 반응 구조를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지스트)은 29일 "최진욱 생명과학과 교수연구팀이 미국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 암센터(Memorial Sloan Kettering Cancer Center·MSK) 이주현 교수 연구진과 공동으로 폐암 발생 초기 단계의 세포 간 연쇄 반응 구조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암이 진행되기 전 단계에서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치료 전략을 제시한 것으로, 연구 결과는 세계 최고 권위의 과학 저널 '네이처(Nature)'에 지난 22일 온라인으로 게재됐다.

폐 선암은 사망률이 매우 높은 암종이지만, 초기 증상이 거의 없는 탓에 환자 대부분은 병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돼 치료 방법이 제한적이다.

연구팀은 마우스 모델과 인공 장기인 '3차원 폐 오가노이드' 실험을 통해 암 발생 초기 단계에서 일어나는 세포들의 '대화'를 추적했다.

폐 조직을 단일세포 수준으로 분해해 섬유아세포(기질세포), 폐암세포(돌연변이 폐 줄기세포), 대식세포(면역세포)의 유전자 변화를 정밀 분석한 결과, 돌연변이 세포가 주변 세포를 포섭해 종양 형성을 돕는 '자기 지속적 회로'를 찾아냈다.

연구팀은 연쇄 반응의 핵심 고리인 '암피레귤린 신호 축'을 유전적·약물적 방법으로 차단했을 때 섬유화 미세환경 형성이 억제되며 폐암 초기 발생이 현저히 저지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암 발병 후 치료하는 기존 방식의 한계를 넘어 암 발생 자체를 뿌리부터 차단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 표적을 찾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진욱 교수는 "이번 연구는 폐암 발생을 극초기에 억제하는 차세대 예방 및 정밀 맞춤형 치료 패러다임을 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옥 기자

'개교 80주년' 조선대, 장미원에 '민주인권동산' 조성

조선대학교는 29일 "개교 80주년을 맞아 캠퍼스 장미원 내에 '민주인권동산'을 조성, 전날 동산 제막식과 장미 명명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조선대는 ▲5·18 민주동산 ▲조선대학교 민주열사동산 ▲소녀동산(2019년 조성) 3개의 동산을 지정하고, 이 구역을 '민주인권동산(CSU Humanity Rose Garden)'으로 명명했다.

5·18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열사들의 신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못다한 꿈을 캠퍼스 안에 항구적으로 기억하겠다는 취지이다.

제막식에는 김이수 이사장과 김춘성 총장을 비롯한 교내 인사와 장숙남 광주지방보훈청장, 정의당 강은미 전 국회의원,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 관련 단체, 조선대 민주열사 가족들과 추모사업회 회원이 함께했다.

동산 제막과 함께 한태호 전남대 교수가 직접 육종해 헌정한 장미 2품종의 이름도 명명됐다. 5·18 민주동산에는 '광주5·18(Gwangju 5·18)', 민주열사 추모동산에는 '대동(Daedong)'이 조민혁 총학생회장의 낭독으로 새 이름을 얻었고, 소녀동산에는 2019년 명명된 '소녀'가 그 자리를 지키게 된다. /박선옥 기자

전남도, 에너지 위기 대응 생활실천 캠페인

전남도와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는 29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도민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실천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은 자원안보 위기경보 '경계' 단계 발령에 따른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도민에게 에너지 절약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에너지 수급 위기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캠페인에선 ▲차량 5부제 자율 참여 ▲불필요한 조명 끄기 ▲적정 실내온도(난방 20도·냉방 26도) 유지 ▲전기차·휴대전화 낮 시간대 충전 ▲세탁기·청소기 등 가전제품 주말 사용 등 에너지 절약 국민행동 실천요령을 집중 홍보했다.

특히 전남도는 태양광 출력제어가 빈번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대와 봄·가을 주말에 전력 사용을 유도하면 타 지역보다 에너지 절약과 계통 안전화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재정 기자

광주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

광주시는 29일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6천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평가로 광주시는 특·광역시 최초로 2년 연속 민원서비스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해 전국 308개 기관(중앙행정기관 48곳, 광역지자체 17곳, 시·도 교육청 17곳, 기초지자체 226곳)을 대상으로 민원행정 전략과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등 5개 항목을 평가한다.

광주시는 총점 94.12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19점 향상된 성적을 거뒀다.

특히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 처리 등 2개 항목에서는 만점을 기록해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역량을 증명했다. /기수희 기자

광주노동청·안전보건공단 '안전문화추진단 회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9일 "전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와 광주 어반브룩 어반리움에서 '2026년 광주지역 안전문화실천 추진단 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관계기관과 기업, 노사단체 등 추진단 및 지원반 70여명이 참석해 지역 산업현장의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논의했다.

추진단은 올해 ▲기초 안전수칙 및 핵심 안전수칙 홍보 ▲노동안전 인식 개선 캠페인 ▲대·중소기업 간 안전문화 공유 ▲도시철도 2호선 건설현장 안전관리 ▲위험성 평가 제도 정착 등 5대 과제를 중심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합동 점검과 멘토링, '안전한 일터 지킴이' 운영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윤찬웅 기자

담양농협, 조합원 자녀에 장학금 수여

담양농협은 "최근 본점 2층 대회의실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열어 조합원 자녀 23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총 2천3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고 29일 밝혔다.

조합원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은 농가 복지 증진의 일환으로 1995년 첫 삽을 뜬 이후 매년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는 담양농협의 대표적인 지역 상생·사회공헌 활동이다.

김범진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농협 사업 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고 널리 홍보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 인재 육성에 앞장서고, 조합원들에게 더 많은 장학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광주 북부소방, 다목적시설 활용 통합훈련

광주 북부소방서는 29일 "지난 27일부터 사흘간 지난해 신축한 다목적훈련시설을 활용해 화재진압대원과 구조대원의 협업 능력 강화를 위한 통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해 실전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고, 화재진압과 구조 분야 간 '교차 교육' 방식으로 운영된 것이 특징이다.

화재진압대원은 구조 기술을, 구조대원은 화재진압 기술을 각각 익히며 현장 대응 시 역할 이해와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개인 비상탈출 및 요구조자 운반 ▲고층부 화재진압 기법 ▲에어매트 조작훈련 등 실제 상황을 반영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조혁환 북부소방서장은 "재난 현장에서는 화재진압과 구조 활동이 동시에 이뤄지는 만큼 대원 간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실전형 훈련을 통해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찬웅 기자

광주 남부소방, 봄철 캠핑장 화재안전 점검

광주 남부소방서는 "최근 관내 캠핑장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 점검과 안전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캠핑장 이용객 증가와 화기 사용 확대에 따른 화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일산화탄소 중독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송성훈 남부소방서장은 "캠핑장은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만큼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계자와 이용객 모두가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형우 기자

행사

▲제47회 담양군민의날 기념식(담양군 이승모 행정과장)=5월3일(일) 오후 2시 담양종합체육관 축제장 주무대, 담양군 담양읍 죽녹원로 134. 이용 안내 : 061-380-3172.

▲제25회 담양 대나무 축제&빛나라 빛나, 대나무!&대나무가 건네는 희망의 메시지(담양군 김은영 관광과장)=5월1-5일 담양종합체육관, 담양군 담양읍 죽녹원로 134, 개막식 5월1일(금) 오후 5시. 이용 안내 : 061-380-3152.

CMYK